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적이 있는가? 로마서 9장

“¹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²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³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⁴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⁵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로마서 9:1-5).

이스라엘은 세상에 메시아 하나님을 가져오는 특권을 누렸다!

“...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로마서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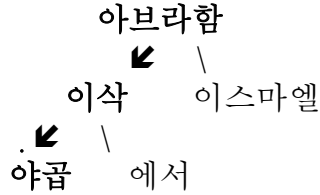
로마서 9장에서의 큰 질문들:

이스라엘이 메시아 하나님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트렸는가?

질문 #1: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선택에 따른 적이 있었는가? 9:6-13.

“⁶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⁷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⁸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⁹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¹⁰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¹¹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¹²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¹³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답변 #1: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른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신명기 23:7).

질문 #2: 만약 하나님이 들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불의하지 않은가? 9:14-18

¹⁴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¹⁵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¹⁶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¹⁷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¹⁸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9:14-18).

답변 #2: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고자 원하는대로 하신다.

질문 #3: 만약 나의 선택이 예정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날 책망하실 수
 있는가? 9:19-21

¹⁹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²⁰이 사람이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²¹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9:19-21)

답변 #3: 우리는 악한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

질문 #4: 만약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겼다면?
 9:22-24.

²²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²³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바 공홀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²⁴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답변 #4: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하게
 이방인들에게 부어주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이 본문의 두번째 줄에서의 중요한 관찰들: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바 궁홀의 그릇...”

1. 하나님은 그의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신다.
2.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되었다.”
3. 궁홀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미리 예비하셨다.”

구약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다:

“²⁵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²⁶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²⁷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²⁸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펼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²⁹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9:25-29).

사람의 선택(예수님을 유대인은 거부하고 이방인은 영접한 사건)은 단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앞당기도록 했다.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³⁰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³¹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³²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³³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9:30-33).

“...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로마서 9장 말씀 요약.

이스라엘이 메시아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단지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을 앞당기도록 하였다.

인간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 이뤄지도록 한다.

하나님의 신성한 주권과 사람의 자유 의지에 대한 두가지 생각:

1. 성경은 서로 조절하지 않고 이 두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2:32).

2. 유한적 존재인 우리는 어떤 무한적인 생각들을 수락하도록 요구되어진다.

ANTINOMY(안티몬): 긴장, 갈등, 반대의 두가지 생각들.

³³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³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로마서 11:33,34).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자세한 토론은 웹사이트에 제공된 로마서 9 장에 대한 주석을 참고바람.